

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,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. 채권의 액면 금액, 액면 이자율,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,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,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 받는다.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.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,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, 만기,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.

A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,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.

a. ~은 유가증권 : 정의에 해당한다. 살짝 추상적이다. 앞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.

문제는 우리가 유가증권이 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. 괜찮다.

유가증권이 뭔지 몰라도 괜찮다.

단어 하나를 모른다고 패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의미를 가져갈 수 있다. 절대 패닉하지 마라

우리는 여기서.

채권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에 쓰이는 무언가라는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.

또한 채권은 '발행 된다는 점'도 알 수 있다.

이런 식으로 모르는 부분에는 '무언가' 또는 '하다' 와 같이 정확한 의미가 없는 '관련성' 만을 의미하는 동사, 명사 (zombie nouns , verbs)를 넣으면 매끄럽게 해결이 된다.

이게 익숙해지다보면 나중에는 모르는 단어 나와도 일단은 그냥 모른다 해도 된다.

단어의 의미는 문맥에 의해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, 또, 한 단어 모르는건 지장없다.

대다수의 경우에는.

b. 국채나 회사채 -> 나열이다. 공통점을 찾자 가능하면 차이점도

공통점은 '채'자가 들어간다. 그러니까 '채권의 예시' 에 해당하는거다.

따라서 정의와 대응시켜줘야한다.

앞분장 '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' -> 발행 주체의 '발행'

으로 대응가능하다. 또, 국채든 회사채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쓰인다고 추정가능.

차이점은 '국, 회사' 등 앞에 들어가는데 다르다. ->

그러니까 뒤에서 아예 이 둘(국채 회사채)을 포괄하는 말이 나온다.

'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' 고 나온다.

일전에도 다뤘던, 일반화 방식이다. 일종의 귀납 추론이지. 변증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.

B 채권의 액면 금액, 액면 이자율,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,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,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 받는다.

a. 액면 금액, 액면 이자율, 만기일 -> 나열 되었다. -3

일단은 공통점

-> 지급조건이라는 점이다. 하지만 충분히 와닿지는 않는다. 무슨 조건이긴 한데, 무슨 조건이라는건지는 잘 모르겠다. -1

조금 더 진행되는 생각은 코멘트 c.에 있으니 보자.

b.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아 그러니까

‘채권은 사고 파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.

그래서 ‘유가’ 그니까 ‘가격이 있다’고 한거지 싶다.’

c. ‘지급조건’ 그러니까 ‘지급과 관련된 조건’ 이다.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‘지급’한다는 것이 정확히 뭘 어떤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점이다.

일단 ‘지급 조건’에는 액면 금액, 액면 이자율, 만기일 등이 있다.

우리는 이들이 뭔지도 모르고, 무엇을 하는건지도 모른다. 앞으로 알아가야한다.

물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‘지급하다’ 가 ‘주다’ 비슷한 무언가라는 건 안다.

다만, 정확하게 뭘 주는지를 모르겠다는거다.

그런데, 뒷 부분에서 ‘지급’이라는 단어가 구체화 되어 나온다.

지급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. -2

지급한다는 것은 ‘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’등에 쓰일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다.

아하, 그러니까 ‘지급 조건’이라는 것은 ‘돈 등을 주는 것에 대한 조건’이라는 것이다.

또 ‘액면 금액’이라는 단어도 반복된다. -2

그러니까 ‘지급 조건’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

액면 금액, 액면 이자율, 만기일 등의 조건들이며

이 조건들은 돈을 어떻게, 얼마만큼 채권 구매자에게 줄 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얘기이다.

만기일 도 반복된다. 만기일이라는 시간에 돈을 채권소유자가 받는다. 그런 점에서 지급 조건이다. -2

*** 이 글이 심하게 어려운 이유는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,

이들의 쓰임새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이기 힘들기 때문인 점도 크다.

또, 이들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자주 보는 관계가 아니다.

이럴때는

첫 번째로는 모르는 단어에 패닉하지 않고 ‘어떤’ ‘무슨’ ‘하다’ ‘이다’

등 의미 없는 빈 단어로 바꿔보면서 읽어줘야한다.

일단, 가져 갈 수 있는 것들이라도 최대한 추측하기 위함이다.

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단어들에 주목해서, 그들을 서술하는 말들을 계속 종합해보아야한다.

(시에서 이해가 정말 안될 때 쓰이는 방식이기도하다.)

세 번째로는 문장, 또는 개념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다.

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관계에 따라 어떠한 의미를 가질지 강하게 추측하는 단서가 된다.

앞 부분에 각 전략이 어디서 쓰였는지 표시해두었으니 (-1 -2 -3 으로 표시해뒀다.

다시 체크해보기를 바란다.

C 이때 **이자액**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.

a. 마찬가지로 **정의** 되어있다. 다만 숫자에 대한 정의라서 딱히 더 구체화 되기 힘들다
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구체화해보자

액면이자율이 1 이고 액면금액이 200 이면 이자액은 200이다.

숫자는 그냥 숫자다

또 **정의**이므로 우리는 이게 뭔지 헷갈리면 여기로 돌아와줘야한다.

아니면 **이자액**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고생다가

액면 이자율 * 액면 금액

이라고 대입해줘도 된다.

마치 지칭어처럼.

b. **이자액**이라는 단어가 앞 문장에서 다시 반복되었다.

그러니까 채권 소유자가 받는 돈들을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거다.

정리하자면

채권소유자는

1. 이자액 = 액면 이자율 * 액면 금액을 매년 받고
2.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 +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. .
는 얘기이다.

그래서 지급 조건에는 ‘액면 이자율’ ‘액면 금액’ ‘만기 일’ 등 채권소유자가 받는 돈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이다.

D. 채권은 **만기일 전에** 거래되기도 하는데, 이때 채권 가격은 **현재가치**, **만기**, **지급 불능 위험** 등 여러요인데 따라 결정된다.

a. **만기일 전에** 라는 말이 나온다. 여태까지는 만기일이 지켜 졌을 때 채권소유자가 받을 돈에 대한 얘기였다.

반면, 이것은 만기일 전에 대한 얘기이다. 그러면 지급조건 말고 다른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. 아니면 지급 조건이 의미가 없어지거나.

b. **현재가치**, **만기**, **지급불능위험** -> 나열이다.

공통점은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고.

재미있는 점은 이 나열이 1문단 마지막 문장이라는 점이다.

아마 당연하게도, 이 요소 3가지는 뒷 부분에서 자세히 서술 되기 위해서 1문단의 마지막에 제시되었을 거다. (글에서 어느 위치에 있냐도 글의 내용을 추측하는데 도움이 된다.)

따라서 우리는 이 글이 만기일 전에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이 저 3가지 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를 다룰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.